

세가지 소원 말해 버린다!!

임용진

월간 하이테크 정보 기자
yjlim@hitech.co.kr



“지금 하고 싶은 것 세가지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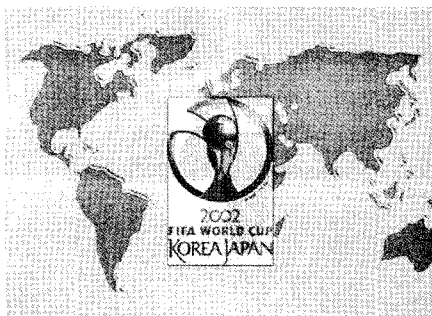
살다보면 한두달에 한번씩은 접하는 가장 흔하면서도 애매모호한 질문이 바로 이거다.

어렸을 때부터 이 질문을 들으면 ‘왜 하필이면 세 가지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두 가지 일 수도 있고 네 가지일 수도 있는데.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 고전이나 지금의 잡지들도 소원을 들어주면 꼭 세 가지다. 알라딘의 지니를 비롯한 동화 속 요정들도 대부분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말하지 백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거나 천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맘 넓은 요정은 없다.

원래부터 삼이라는 숫자는 완성을 의미한다고 말하지만, 어차피 세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나중에 주인공이 소원을 안 들어주느니 못한 상황으로 결론을 맺기 때문에 그것과도 상관은 없을 듯 하다. 뭐 도의 기원이 천. 자. 인 삼위일체이고 밥도 아침 점심 저녁 세끼 먹는 데다 세명이 모여 야고스톱도 칠 수 있으며 모든 게임의 원칙이 삼세판인 것을 볼 때 아무래도 세가지가 자연스럽게 나오느냐고 박박 우기는 사람이 있다면 할말이야 없다.

그래도 천편일률적인 것에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나로서는 이야기 속의 세가지 소원에 대해 들을 때 계란판 위에 줄 세워 둔 계란들이 생각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까피까피 툼툼’을 외치며 하루에 한가지 소원씩 매일매일 들어주는 바람들이를 나는 너무도 사랑한다. 비록 타고난 정력이 모자라 하루에 한가지밖에 들어주지 못하는 슬픈 운명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세가지 소원’에는 엄연한 논리적 모순이



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세가지 소원을 모두 들어준다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마지막 소원은 세가지 소원을 더 들어주는 거야' 내지는 '내 소원은 네가 내 소원 천가지를 들어주는 거야' 하고 말한다면, 그것 역시 세가지 소원이기 때문에 들어줘야만 한다. 흠... 그럼 이제부터 소원을 들어주는 모든 동화 앞에는 이런게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제부터 당신의 세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소원을 들어주기 전에 우선 본 사용자 약관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아 갑자기 머리가 아파온다. IT??

그냥 내 소원 세가지나 말해야겠다.

먼저 첫 번째, 당연히 on. ly. Girl. 이지. ㅎㅎ 갑자기 친구들의 원성이 들려오는 듯하군. "야, 또 한 여자를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 하는구나. 넌 그냥 있는 게 한 여자 살리는 거야." "어머, 용진씨의 성격파탄을 또 다시 자랑하려 하시는군요." "그래? 갈때까지 가봐라 니가 끝장나나 세상이 끝장 나나." "이번에도 두달 안에 끝난다는 데 만원 건다." "그래도 석달은 가지 않을까, 자기도 사람이라면." 커헉 T.T~~~~~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특이한 인간하나 감당 못하는 세상 모든 여자들도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참고다니다 익숙해지면 괜찮을 듯도 싶은데..... 알았어. 이제 여자친구 생기면 남들 다 보는데 코 후비는 거에 쾌락느끼는 짓 그만 할게. 갑자기 신촌 네거리에서 국민체조 하는 버릇도 고치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다리거는 것도 참아야겠지. 켄치 아저씨 빠리리침 하는 일도 그만 두고, '뽕' 이나 '내일 전화하심 안돼요' 같은 노래 억지로 듣게 하지도 않을게..... 이런 젠장, 차라리 혼자 살고 말겠다!!

이상한 건 예전에 세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엄청 스케일이 컸던 것 같은데, 요즘은 상당히 현실적이거나 일상적인 쪽으로 가는 것이다.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이번 달 카드 메꾸게 백만원짜리 복권이라도 당첨돼 봤으면, 달력의 까만 날 중에 절반만 빨간 날로 바뀌었으면. 이렇게 말이다. 현실에 적응해 가는 건 좋지만 야망도 꿈도 없는 초라한 아저씨. 가 되어간다는 생각이 들 때 왠지 허전해진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싶거나 재벌이 되고 싶다는 소원을 말하기보다, 이승환의 노래처럼 여자친구에게 '나 없을 때 아프지 말아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을 땐 착한 거짓말만 해야해.^ 지금 잡은 두 손 놓지 말자'는 소원이 더 공감이 간다.

나의 두 번째 소원은 좀 긴데.....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 남북 통일과 지역감정 타파, 2002월드컵 성공개최 등등' 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애국자라거나 평화주의자는 아니다. 자기 돈벌이에 애국심을 갖다 붙이는 기업가들이나 계파의 이익에 대의명분을 들먹거리는 정치인들이 싫다. 결국엔 자기 밥그릇을 채우기 위한 것이면서도 대단히 형이상학적인 삶을 사는 듯 위선을 떠는 사람들이 사라지도록 우리가 원하는 커다란 소원들이 모두다 이루어 졌으면 한다. 그래야 세계의 평화와 조국의 앞날을 책임지겠다고 공언하면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릇된 일부 상류층들이 갖다 붙일 말이 없어지겠지. 뭐 그 사람들 잘 사는 거야 부럽지 않지만,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면서도 마치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들을 보면 배가 뒤틀린다. 난 그런 상류층 보다 고아들의 발을 씻겨주는 자원봉사자 아주머니와 재해

현장에서 땀흘려 일하는 군인들을 더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의 마지막 소원은. 뭐라고 그럴까. 흠..... 글썽 너무 많아서 하나를 꼽을 수가 없다. 영원히 늙지 않게 해달라고 할까. 그래야 내 꿈처럼 힙힙까지 입고 환갑 잔치할 텐데. 아니지. 그냥 평범하게 돈 많이 벌게 해달라거나 무역센터 같은 빌딩하나 있었으면 할까. 췌 그런 거 있어봐야 거주장스러운 거 같고. 흠 만화도서관? 그래 그거 좋겠군. 일주일에 보는 만화 스무권 곱하기 300원 곱하기 50주에다가 곱하기 삼십년. 에게~~~ 구백만원 밖에 안 되는 군. 그럼 열.씨.미. 벌어서 보고.....

근데 잠깐만. 이거 백날 머리로 상상해 봤자. 누가 들어주는 것도 아니잖아. 어, 그럼 지금껏 손아프게 자판 두드린 것도 말짱 짱인 거네. 아니다. 혹시 원고료라도 주지 않을까. ^^;

역시 한시간이 내 집중력의 한계로군..... 오후. 생각났다. 내 세 번째 소원은 "앞으로 세가지 소원을 더 말하는 것"이다. (후훗. 생각한 걸 금방 써먹는군^^) 그럼 이 글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된다. 조금은 지루하고 졸립더라도 눈 크게 뜨고 잘 읽어보시길. 내 세가지 소원은 말이지..... **KCRC**



난 그런 상류층 보다 고아들의 발을 씻겨주는 자원봉사자 아주머니와 재해현장에서 땀흘려 일하는 군인들을 더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